

“중국인 겨냥 전남도에 해삼양식단지 조성”

FTA발효 대비 ... 중남미 수산물 수출전략도 필요

농어촌공사, ‘어촌수산업의회’서 전문가들 주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에서 해삼 양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소비자들이 국내 해삼과 전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스타리카, 쿠바 등 중남미 국가를 겨냥한 수산물 수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본부 소회의실에서 최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사 어촌수산업 역할’을 주제로 ‘제3차 어촌수산 광역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제3차 회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어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론에 대해 각계 전문가 자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이 회의는 ▲2015년 결과보고 ▲15년 공사 어촌수산분야 주요활동 및 실적 ▲향후 추진계획 ▲공사 어촌수산분야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대한 자유토론 순으로 열렸다.

자유토론을 통해 신순호 목포대 교수,

김경수 조선대 교수, 임여호 전남대 초빙교수 등 전문가 11명은 지역의 어촌수산 발전을 위한 공사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상욱 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한중 FTA에 대비해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해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남도 차원의 치상 방류와 해삼양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김경수 조선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 수산분야에 진출해야 하고, 수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현장 견학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수산 자원 고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장동범 동진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수산 자원 고갈에 대비한 자원복구 사업이 필요하며, 수산자원이 최소 20% 감소하면 자원복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여호 전남대 초빙교수는 “바다 양식은 해양오염으로 축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향농지에 미꾸라지 양식을 만드는 등 육상 양식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광 본부장은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광역거버넌스 회의가 지역발전 대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콩 K-POP 행사서 한국 농식품 홍보

농식품부·aT, 홍보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aT)는 2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Asia World Expo)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케이-팝(K-POP) 행사인 ‘MAMA’(Mnet Asian Music Awards) 시상식과 연계하여 현지 소비자 대상 대규모 한국농식품 홍보행사(사진)를 했다.

MAMA는 1999년부터 시작된 K-POP 시상식으로 세계최고의 한류 아이돌 및 배우들이 참석하며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 및 다양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 12개국 이상에 생방송되는 K-POP 공연이다.

aT홍콩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 동안 홍콩 플라자 힐리우드

에서 한국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 행사장을 찾은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농식품 시음행사도 했다.

MAMA 시상식 당일인 12일에도 한국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한국의 대표적 김치류 음식인 김밥, 만두 등을 나눠줬다.

aT홍콩지사는 케이-푸드(K-Food)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국농식품으로 구성된 웰빙 도시락세트를 MAMA 시상식에 제공하여 TV는 물론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이승훈 aT홍콩지사장은 “다양한 방식의 소비자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한국농식품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랑의 김치담그기

농협전남본부·나주시사랑봉사단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 행복나눔봉사단과 나주시청 과장급 이상 부인들로 구성된 나주시사랑봉사단 회원 100여명은 2일 나주 한국전연연색박물관에서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사진)를 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과 김장채소 소비 확대 운동을 위해 마련됐다.

신정훈 국회의원 부인인 주향덕 여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부인인 이매실 여사가 참여하여 봉사단 회원과 함께 2000여 포기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가정에 전달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직접 담근 사랑의 김치는 나눔과 배려의 정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광록기자 kroh@

4대강 물 끌어오고 가뭄지도 만든다

정부, 가뭄 상시대응 체계로

수리안전담 비율 80%로 상향

가뭄이 발생한 뒤 사후 ‘응급 복구’ 중심이었던 정부의 가뭄 대응 전략이 ‘상시 체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가뭄 관련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저수율, 강우량, 유효토양수분량,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도를 만든다.

지도에는 각 지역 가뭄 상황이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 단계로 표시된다.

농업가뭄지도는 바탕으로 가뭄 발생이 예측되면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가뭄협의회를 열어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3개 시·도, 10개 시·군, 5000ha 이상 논·밭이 가뭄 주의 단계가 되면 농식품부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경계 단계가 되면 국민안전처에 중앙가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매년 10월 1일 저수지별 저수량과 강수 상황을 점검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강수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 준설, 양수 저류,

관정개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응수 확보 대책을 펼친다.

우선 심각한 가뭄에도 응수 공급이 가능한 논인 수리안전담 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하천수를 활용, 4대강 인근 1만2000ha에 이르는 물 부족 농경지에 매년 응수를 1억㎡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4대강 하천수를 가뭄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뭄이 심각한 충남 서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응수 공급이 시급해 4대강 보인공 주요·상주보와 저수지(예당지·화남지)를

각각 연결하는 도수로 설치 공사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 가뭄 우려 지역 내 저수용량 10㎡ 이상, 유역면적 500ha 이상 기존 저수지 물그릇을 키워 저수 용량을 늘린다.

논보다 가뭄에 취약한 밭 응수 공급률은 18%에서 30%까지 높인다. 가뭄 상습 지역 밭 15만ha에 응수공급계획을 우선 적용하고, 고령지배추 주산지인 강원 안반덕 지역에 내년까지 63억원을 투입해 양수장과 저수조를 설치한다.

또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사업 확대와 노후 저수지·양수장 개보수 등으로 물관리손실률을 35%에서 25%로 낮추고, 버려지는 논물을 재활용해 농업용수 반복 이용률을 15%에서 30%로 개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해수부, 12월 수산물 송어·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는 12월의 어식백세(魚食百歲) 수산물로 송어와 가리비를 선정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제철인 송어는 양질의 단백질 함량을 함유하며 갈송 함량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월등히 많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B2 등 각종 영양소도 풍부하다.

간장, 생강, 마늘, 파 등을 넣고 구워먹거나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어 칼칼한 매운탕이나 조림 등으로 먹으면 맛이 좋다.

가리비는 단백질 함량이 다른 조개류보다 많다. 많이 든 유향 아미노산인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 고지혈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

맛을 내는 성분인 글리코젠, 글리신, 호박산이 많이 들어 있어 시원한 국물 요리뿐 아니라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12월 한 달간 인터넷수산물(www.fishsale.co.kr)과 전국 22개 수협 바다마트 매장서 송어와 가리비를 시중 가격보다 10~20% 싸게 판다.

아울러 해수부는 12월의 지역행사소재로 경남 거제 외포항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거제대구 수산물축제’(19~20일)를 선정했다. 축제에 참가하면 대구 딱구 무료시식, 대구잡이, 경매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연합뉴스

딸기, 11월 매출 30% ↑ 초겨울 대표과일 자리매김

지난달 딸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매출이 늘면서 딸기가 초겨울 대표 과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마트는 2일 “지난달 딸기 매출이 2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과일 전체 매출은 지난달 3.3% 감소했지만 딸기는 예외였다. 딸기 매출은 2년 전인 2013년 11월(13억원)과

비교하면 123% 급증했다. 이마트에서 11월 딸기 매출은 2013년 전체 과일 중 8위였으나 올해는 5위로 뛰어올랐다.

이마트 관계자는 “11월은 딸기를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첫 달이기 때문에 가격이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작년보다 20~30대 여성고객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예년 12월 매출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공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